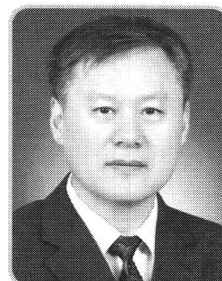


# 불안한 세계 대두박 시장 동향

## 미산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아질 전망



김치영  
본회 구매본부장

금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대두 가격의 상승세가 타 곡물가격의 동반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남미산 대두의 수확시즌이 다가 오면서 예상 수확량의 감소 우려에 따라 대두 및 대두박 가격의 강세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6일 현재 미산 대두 가격은 C&F 기준 601불로 1월 평균가격인 520불 대비 15.6% 상승하였으며, 남미지역의 일기불순에 따른 생산 감소와 미산 대두의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주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사료원료중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해 왔던 대두박도 미국 내 에탄올 가공 부산물인 DDGS의 지속적인 공급과 경기침체로 인해 사료용 대두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두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대두박 가격도 남미의 대두 작황 부진과 함께 그 동안 상대적으로 타 원료가격에 비해 약세를 보여 온데 대한 반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4

<표 1> 주요 곡물가격 동향

(단위 : USD/톤, C&F 기준)

구 분	2012년 1월 평균	4월16일 현재	증감(%)
옥수수	323	331	2.5
대 두	520	601	15.6
대두박	413	498	20.6
사료용 소맥	276	286	3.6

<표 2> 세계 대두박 수급전망(USDA 4월 발표치)

(단위 : 백만톤, %)

구 분	생산량	총소비량		재고량	재고비율	
		국내소비	수 출			
세 계	2011/12년 (A)	176.66	176.03	59.91	6.89	2.9
	2010/11년 (B)	173.99	170.21	58.41	8.06	3.5
	증감율(A/B)	1.5	3.4	2.6	-14.5	
미 국	2011/12년 (A)	35.64	27.76	8.07	0.27	0.8
	2010/11년 (B)	35.61	27.47	8.26	0.32	0.9
	증감율(A/B)	0.1	1.1	-2.3	-15.6	

월 16일 현재 미산 대두박 가격이 C&F 기준 498불로 1월 평균가격인 413불 대비 20.6%나 상승하였다. 동 기간 옥수수나 사료용 소맥은 각각 2.5%, 3.6%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남미 브라질의 대두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대두 가격의 강세현상으로 미국의 대두 식부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미국의 대두 및 대두박의 재고율로 인해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0일 발표된 미농무성(USDA)의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세계 대두박 재고량은 6.89백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할 전망이다이며, 미국 또한 전년대비 1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적인 곡물 수급 예측기관인 Informa Economics의 최근 발표

에 따르면 금년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각각 45백만톤, 66.5백만톤으로 전년 대비 4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 기관들은 이 보다도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의 두 경우 중 어느 경우 일지라도 금년도 남미지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John C. Baize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금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전망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의 대표적인 대두 생산국들의 대두 재고량은 총 28백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 대두 시장은 미산 대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남미지역의 대두 생산 및 재고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주요 수출국들의 대두박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대두

박 가격의 추이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인도가 이란에 상당량의 대두박을 수출하면서 인도산 대두박이 아르헨티나 대두박에 비해 톤당 20불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대두박의 경우도 선박 좌초 및 선적시설 파손 등으로 인도시기도 25일 이상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급지연은 좌초된 선박에 의한 Rosario지역 부근의 Parana강 봉쇄에 의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브라질의 공급지연도 선박 충돌로 인해 파괴된 선적시설의 수리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간에 수습되기는 어려워져 보인다.

따라서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대두박 구매자들이 긴급수요를 맞추기 위해 소규모 선적의 인도산 대두박에 대해

프리미움을 지불해가며 구매를 늘리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가 인도산 대두박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게 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미국산 대두와 대두박 수출에도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두 작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미드웨스트 지역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작황도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두박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남미지역의 작황부진과 함께 불확실한 미국의 금년도 대두 작황을 고려할 때 현재 브라질산 대두박 대비 6~7불 상회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미산 대두박과 남미산 대두박의 가격 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면서 향후 대두박의 원월도 구매를 통한 가격 상승에 대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